

- 광주·전남 신규 협력과제
 - ▲한전공대 설립
 -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 관리·운영
 - ▲2018 전남 국제 수목화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 광주·전남 현안과제
 - ▲광주 군공항 이전
 -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 ▲한전공대 설립
 -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민선 7기 시·도 ‘통 큰 합의’ 내놓을까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20일 첫 상생발전위원회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설립 등 ‘뜨거운 감자’ 촉각

민선 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광주·민간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통 큰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선 6기 후반가동력이 떨어진 시·도 상생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취임한 시·도 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찾을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선 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협의

회는 회의 대신, 이번 주 중 의제 조율 등을 서면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는 기존 15개 협력과제 외에 신규 협력과제로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 관리·운영 ▲2018 전남 국제 수목화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안과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등이 논의 대상이다.

특히 민선 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시·도지사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광주·민간 공항의 전남 이전, 한전 공대 설립이다.

광주 민간공항의 경우 군공항과는 별개로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데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민간공항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시·도지사가 민간공항과 함

께 광주 군공항의 전남 ‘패키지 이전’ 논의에 나설지 여부가 민선 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안이다.

시·도지사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논의의 첫 단추를 껴면 속도감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반대로 의견 차이를 노출하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군공항 이전 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 공대 설립의 경우 최근 개교 시기 지연, 규모 축소 등 우려가 나온 상황이라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간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한전의 부지 결정을 지켜보기로 하는 등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2면에 계속

/임태만 기자 tcm@kjdaily.com



“국가 균형발전”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토발전 성장축)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 서명식이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무궁화 홀에서 열려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준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경 대전시장) /광주시제공

“신성장동력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해야”

〈강원·충청·호남 성장축〉

광주시·전남도 등 8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강원·충청·호남권 8개 시·도가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연결 성장축)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전남도 등 강원·충청·호남의 8개 시·도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광주 시장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경

대전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공동건의문에 사전 서명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은 ▲국가균형발전과 남북 평화통일·교류 등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 ▲강호축 8개 시·도의 공동 노력과 성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

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강호축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올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와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핵심사업으로 명시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강호축 개발은 국가균

형발전의 실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축 8개 시·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하며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현재 시·도 계획 및 부문별 계획 작성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안 마련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김디이 기자 ssdai@kjdaily.com

옛 도청 복원 속도 낸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조선대 산학협력단 선정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복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옛 도청 원형 복원을 약속한 후,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도 도청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용역 희망업체가 없어 복원사업 자체가 수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했던 터라,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으로 옛 도청 복원사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14일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옛 도청 원형복원은 5월 단계와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아시아문화원은 복원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건물 복원과 콘텐츠 구성을

위한 기술용역 공고를 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아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선대 산학협력단 측은 지난달 옛 도청 복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제안서를 접수한 후 14일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 용역수행 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용역 과업지시에는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복원 방안 및 활용계획 제시 등이 포함됐으며, 조선대 산학협력단 측은 건물 외형 복원과 내부 콘텐츠 구성 등 용역 과업지시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문화원 사업담당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두 차례 유찰돼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므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협의하고 오는 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조속히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이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자치분권 새 시대를 열다
김순호 구례군수 ▶ 5면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고밀량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순수 녹차 정제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V-B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